노동부–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전원 불법파견 시정명령 환영!

부평 · 군산 시정명령 발표 촉구!

한국지엠은 직접고용 즉각 이행하라!

불법파견 중단,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

▶일시 : 5.29(화)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종합청사 앞

전국금속노동조합

□ 진행 순서

사회 -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황호인지회장

1) 투쟁경과 및 발언
   -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배성도정책부장

2) 규탄발언 - 금속노조 양기창 부위원장

3) 투쟁발언 - 금속노조 인천지부 이대우수석부지부장

4) 규탄발언 - 사회변혁노동자당 백종성 집행위원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한국지엠군산비정규직지회 이완규부지회장

6) 폐회

□ 기자회견문

늦었지만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환영한다!
한국지엠은 즉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라!

5월 28일 노동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8개 하청업체 774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774명을 한국지엠이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했다. 한국지엠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원청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사실상 정규직이라는 내용이다. 우리는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우선 환영한다.

노동부 결과발표 과정은 문제점 투성이다!

그러나 결과 발표의 과정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11월 7일에 근로감독 청원을 넣은 뒤 6개월이 넘어서야 발표가 나왔다. 노동부는 2월 말 결과발표를 약속했지만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지엠과 협상과정을 눈치보기하며 결과발표를 늦춰왔다. 이미 확정된 내용을 발표하는데 정부기관이 정치인처럼 판단을 하는 모습은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었다. 이런 정치적 판단 과정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통받아야 했다. 창원공장은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지만 아직 부평과 군산공장은 남아있다. 노동부는 신속하게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해야한다.

한국지엠은 즉각 정규직화 실시하라!

한국지엠은 2013년, 2016년 대법원에서 두 번의 불법파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지금까지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반복해왔다. 올해 2월 13일 인천지법에서 다시금 판결을 내렸음에도 정규직전환은커녕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지엠은 노동부 판정을 수용하여 즉각 정규직전환을 해야한다. 만약 한국지엠이 이번 노동부 시정명령까지 무시하고 행정소송으로 꼼수를 부린다면 이를 가만둬선 안 된다. 노동부는 한국지엠이 시정명령을 따르도록 철저하게 강제해야 하며, 검찰은 위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자인 카허 카젬 사장을 엄벌해야 한다.

한국지엠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지엠에 8100억가량의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지엠 사태는 끝났고 정상화만 남았다고 설레발친다. 그러나 한국지엠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된 비정규직이 길거리에서 복직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불법파견 문제 역시 여전하다.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며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한국지엠에 8100억원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 정부는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과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노동부는 부평과 군산공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하라!
- 한국지엠은 근로감독 결과를 수용하고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 검찰은 한국지엠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라!
- 정부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문제, 불법파견 문제 책임져라!

2018년 5월 2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참고자료 : 재판 진행 과정

● 재판 진행 과정	
2005년 1월 26일	노동부 불법파견 진정 진정인: 민주노총/금속연맹/ 지엠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 대우차지부
2005년 4월 13일	노동부 창원공장 불법파견 인정(6개업체 843명 전원)
2006년 3월	노동부 - 파견법 위반 혐의로 닉 라일리 사장과 6개 하청업체 사장을 검찰에 고소
2006년 12월	검찰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사장과 6명의 하청업체 사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벌금) 처분 지엠대우 약식처분 거부하고 정식재판 청구
2009년 6월	닉 라일리 사장 및 6개 하청업체 사장 파견법 위반 무죄 판결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손호관 판사
2010년 12월 23일	닉라일 리 전 사장 벌금 700만 원, 6명 하청업체 사장 벌금 400~200만 원 선고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허홍만 부장판사
2013년 2월	대법원 한국지엠 창원공장 843명 전원 불법파견 판결 닉 라일리 사장과 하청업체 사장 벌금 선고
2013년 6월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명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2013년 12월	노동부 창원지청 특별근로감독 진행 - 불법파견 무혐의 판정
2014년 10월	조합원 가입 및 2차 소송단 모집
2014년 12월	창원공장 1차 소송단 1심에서 전원 승소
2015년 1월	근로자확인 2차 소송 돌입(부평-창원-군산 78명)
2016년 1월	1차 소송단(5명) 고등법원 전원 승소
2016년 6월	대법원 1차 소송단 전원 승소 판결
2016년 10월	대법원 승소자 5명 전원 정규직 전환
2017년 9월 29일	3차 소송단 소송 돌입(114명)
2018년 2월 13일	인천지법 2차 소송단 부평과 군산공장 판결(전원 승소)/ 창원 분리 판결(현재 심리 진행중)
2018년 5월 28일	노동부 창원공장 774명 전원 불법파견 판정